

‘환경과 산업의 균형발전 시각 필요’

‘포장기술인동아리’ 모임 이끌어

“그저 포장산업 실무진에 종사하는 비슷한 연배들끼리 자주 어울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친목형식으로 시작한 모임일 뿐입니다.”

〈포장기술인동아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물어 물어 찾아가서 만난 동아리 회장 김태식씨.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다.

크지 않은 포장업계에 여러가지 모임을 만들어 집단 이기주의의 운운하는 비판을 받을까 한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모임이라고.

대선배님들을 존경한다고 말하는 김태식씨는 포장협회나 포장기술인협회가 마음에 안들어 새로운 모임을 결성한 것은 결코 아니라며 다른 단체에서 어떤 안건을 내건다면 그에 협조하여 하나의 포장인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포장기술인동아리는 현재 포장업계에 근무하고 있는 실무진들의 모임으로 지난해 12월 결성되었다.

3명의 고문을 포함하여 회원수는 26명.

대부분 식품업체에서 포장담당 업무를 맡고 있거나 포장재질 가공처, 원재료업체, 중포장업체에 근무하고 있다.

같은 일을 하는 비슷한 연배들끼리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시작, 점차 기술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실무진을 위한 책자 발행계획 등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포장에 관련된 자료도 수집, 정리중이다.



▲김태식 대표

아직까지 포장업계의 기반이 약해 기초자료가 부족한 형편인데, 그나마 기업마다 자료를 배타적으로 소유, 업무수행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는 김태식씨는 동아리에서 정리되는 자료는 언제라도 필요한 곳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연말쯤에는 그동안의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자리도 갖을 계획이다. 올 연말에 발표할 주제는 〈END USER에서의 포장문제점〉과 〈컨버팅에서의 포장문제점〉이라고 귀뜸.

포장기술인동아리는 같은 일을 하는 비슷한
연배들끼리 모여 친목을 도모하고 정보를 교환하면서 시작,
점차 기술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실무진을 위한 책자
발행계획 등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전문적인 포장교육 기관 설립 필요'

화학공학을 전공한 김태식씨는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해태제과 포장개발부를 거쳐 지금은 동신케미칼 대표로 재직중이다. 동신케미칼 역시 포장에 관계된 회사로 미국, 일본에 포장재를 수출, 수입하고 있다.

포장외에 관심있는 분야는 국악과 당구, 여행이라고. 대금, 단소를 배우며 접하기 시작한 국악의 매력에 요즘은 흠뻑 빠져있다.

포장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포장전문교육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김태식씨는 말한다.

“지금까지 포장교육은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서 실시하는 포장관리사 양성제도가 그 체면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동국전문대학에 포장학과가 개설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지요.

하지만 4년제 대학의 포장학과 개설이나 포장 아카데미의 설치 등 좀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 뿐만 아니라 많은 포장인들의 바램일 것입니다.”

그 외에도 포장전문인의 입장에서 요즘은 안타까운 점이 많다고 한다.

“포장은 사실 현대 산업사회에서 필수불가결한 것 아닙니까. 제품이 우수하더라도 포장이

뒤따르지 못하면 소비자에게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즘 너무 환경에 치우치다 보니 마치 포장은 불필요한 것, 심하게 표현해 쓰레기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포장을 자제하자는 생각보다는 사용 후 처리방안에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근래 포장산업이 지나치게 위축되고 있어요. 포장산업이 위축되면 대외경쟁력이 떨어져 전 산업이 위축될 수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환경과 산업을 동시에 생각하는 균형있는 시각이 필요한 때입니다.”

윤희진 기자